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 뉴스데이

newsday.or.kr

사랑과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인력'



031-759-5588

제44호 | 발행일 : 2010. 1. 25. |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광주권 발전의 '출발점'

김대화 전국 재경고흥군향우회장



### INDEX

0 하광상공회의회소 '2010년 신년인사회' 개최	2면
0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급류 타나?	3면
0 판교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 '준공'	4면
0 6·2 지방선거 후보자... 표심 잡기 '시동'	5면
0 이제 지역불모를 떠나 큰 정치를 해야 할 때	8면
0 임산부 5명중 1명 '유산'... 대책 마련 '절실'	10면
0 경기도 - KT&G 법적 소송 '틀림'	11면
0 "고도제한 완화 없는 재개발 반대한다"	14면



美秀多한 면세쇼핑으로  
더욱 더 幸福해지는 201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ndwritten signature*

언제나처럼 JDC제주공항면세점에서 제주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제주여행의 마지막 필수코스! JDC제주공항면세점!

JDC 제주공항면세점

# 하광상공회의소 '2010년 신년인사회' 개최 백남홍 회장, "투명경영으로 고용 확대 할 것"

하광상공회의소(회장 백남홍) '2010년 신년인사회'가 8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남시청 대회의실, 광주축협연회장에서 연이어 개최됐다.

이날 하광상공회의소 백남홍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기업인들은 고용과 생산을 확대하고 법제도를 지키며 투명한 경영을 하고 사회봉사 등 성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지역, 계층 분열과 이념갈등, 여야 대치는 정치권에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남홍 회장은 "전 정권의 국토균형 발전의 명분하에 있을 때 김문수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통해 규제를 푸는 단초를 제공했고 정책 실행차 분규상태 때에도 김문수 도지사가 공권력 투입과 타협을 통해 희생자 없이 해결했다"며 김 기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또 "이는 대한민국 노사 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며 이번 세종시 문제도 인근 경기도에 영향이 없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도지사는 새해 인사말을 통해 하남시와 광주시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로 아끼지 않겠다.

"하얀 눈처럼 올해 기업인들에게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말문을 연 김 지사는 "하남시는 한강을 끼고 있고 남한산성과



백제의 발원지로서의 역사와 희망의 고장이지만 86%는 그린벨트로써 이런 무식한 행정이 어디있냐"며 "부임 후 245만평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36만평 상수원보호 규제를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도 없는데 그린벨트라는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경기도의 요구이며 김황식 시장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하남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단결해 나가자"며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라는데 일자리는 대통령, 시장, 공무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

으로 정부는 기업인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의 규제를 비난했다. 김 지사는 "시민과 도민이 기업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계 인류기업이 되도록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상공회의소 인사회에서도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해 기업이 일 잘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해야 하며 광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 7130만평이 풀렸음에도 공장을 지으려면 자를 갖지 않다고 한다"며 "기업인이 맘 놓고 될 수 있는 전폭적

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김문수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가 비약적인 발전과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하남시는 아직 미약하다"며 "경인년 새해를 맞아 변화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건전한 비판이 아닌 목격 없는 비판을 시민들이 걸러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본인이 경인년 백호띠, 경인생"이라며 "힘을 합쳐 하남시민의 비전을 찾아내자"고 말했다.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도 신년사에서 "지난해 경제 어

려움 속에서도 명품 도시가 되는 초석의 한해였다"며 "새해에는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변함없이 시민여러분이 하나 돼 노력하자"고 말했다.

광주시 정진섭 국회의원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험난한 길을 광주시민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금년 경제회복이 돼 하반기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산업 입지 규제를 푸는데 많은 노력을 했으며 세종시 문제가 가라앉으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하남시청에서 열린 하남상공회의소 신년회에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황식 시장, 김병대 시의장, 배윤례 시의원, 이강순 경찰서장, 김성기 광주하남교육장, 오보근 하남소방서장, 양인식 하남문화원장, 대한노인회하남시지회 운영위원장 등과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어 광주상공회의소 신년회에는 김문수 도지사와 조억동 시장, 이상택 시의장, 정진섭 국회의원, 임종성 도의원, 김영훈 시의원 등 시의원, 김성기 광주하남교육장, 안충진 광주소방서장, 이상복 광주문화원장, 광주시기업인협회 한종수 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정관수 기자

## 광주시, 농업인 실용교육 개최

### 22개 교육장서 열려...1천8백여명 교육 참가

'광주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한 이번 교육은 다음달 3일까지 관내 22개 교육장에서 1천 8백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연채 브랜드 신뢰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요 농정시책 추진방향,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경영, 유통, 농산물 품질관리,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등을 집중 교육한다.



## 광주시, 이웃사랑 실천 '후끈'

### 4억6천여만원... 어려운 이웃에 전달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의 이웃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시는 지난해 시민들이 기탁한 성금 및 성품의 총액이 4억 6천 4백여만원으로 지난 2008년 기탁액 2억 7천 4백여만원보다 1억 9천여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광주시 후원으로 추진된 '1인 1계좌 갖기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1년간 1억 9천 2백여만원을 모금한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은 광주시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광주시행복나눔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전달돼 큰 희망이 됐다"고 말했다.

#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급류 타나?

## 성남시의회 날치기 처리... 후유증 장기화 예고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의견제시안'을 3개시 중 마지막으로 22일 0시 30분 경 날치기 처리함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통합 추진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2일 오전 이대엽 성남시장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따른 담화문'을 내고 "위대한 결정을 위해 노력한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성남, 광주, 하남이 하나의 통합시로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3당은 "날치기 미수로 원천무효"라며 "헌법소원은 물론 효력정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최대한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문석 위원장, 정종삼, 최성은 위원은 의회 4층 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끝어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야3당 전체 기자회견을 가졌다.

### ▲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 사항

지난해 8월 19일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환식 하남시장은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도시의 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성남시 등은 9월말 자율통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나 의회 의결 등 통합시 추진방식이 논란이 돼 이대엽 성남시장은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로 사실상 통합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 성남시 등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통합 의결하고 하남시의회도 24일 통합 의결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통합시 추진에 반대하는 분당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줄속통합지지 움직임이 격화되며 민주당 등 야3당은 21일 예정된 정례회 2차 본회의의 안건 상정을 저지키 위한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통합논의 연기라는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성남시의회의 통합 논의는 1월 20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 167회 임시회로 넘어갔다.

35석 중 20석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진행되고 당원의 표이탈만 막으면 통합안 의결은 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민주당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의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민투표 요구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 등을 함께 발의해 주민투표로 통합시를 결정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20일 1차 본회의가



산화된 후 여야는 서로 간에 이상한 감세를 알아차리고 한나라당 김대진 의장은 본회의장 의장석에 남아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 최성은, 김현경 의원과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이들은 반대로 김대진 의장이 자리를 떠나길 기다리며 대치에 돌입한다.

다음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상임위 방청을 요구하는 통합시 찬반 시민들과의 실랑이가 길어지며 1차 회의는 개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낮 12시 20분경 본회의장 의장실에 교섭단체

합의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해 의장석을 기습 점거하고 쇠사슬로 몸을 감아 통합안 의회 의결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대진 시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나오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날치기를 위한 점거이며 따라서 김대진 의장이 양당 간의 신뢰를 기초로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 따라서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허를 찔린 갑작스런 기습 점거 소식에 본회의장에 집결, 의장석 점거를 풀라고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히 움직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본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김대진 의장을 수중에 넣기 위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없는 상황으로 치달게 됐다.

한나라당은 22일 0시 30분을 목표로 본회의장에 이미 모여 있던 14명의 의원과 김대진 의장을 엄호하며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 입성한 6명의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등과 합세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야3당 의원들을 힘으로 제압한 후 초소피드로 의사일정 변경과 함께 통합안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정권수 기자

## 6·2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돌입'

### 경기도 시·군의원 417명... 중선거구제 유력할 듯

6.2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경기도가 11일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14일까지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릴 도의회 심의



를 거쳐 28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단, 지난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이 공포되면

2월 19일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그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2월 19일 전까지 의원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한다"며 "그러나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 시군의회, 시장,군수 및 정당 의결 청취, 조례 통과 등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7일부터 21일 기간내 통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부터 14일까

지 구성을 마치고 20일과 29일 두 차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군의원과 시장,군수 및 정당의견 청취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는 417명이며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하게 돼 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월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가운데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권수 기자

# 판교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 '준공'

## 2011년 2,231호 입주 예정... 판교밸리 등 첨단업종

판교신도시가 2001년 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8년 만에 전체면적 9.3㎢의 90%에 해당하는 8.4㎢를 1단계로 준공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날 31일 "판교신도시 1단계로 준공되는 지구는 8.4㎢로 판교신도시 전체 면적 9.3㎢의 90%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1단계 지역 중 2009년 12월까지 입주예정인 1만4천세대대의 82%인 1만4천세대대가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2단계 사업은 82만6천㎡ 면적에 판교IC확장, PF사업단지, 자연장지사업 등"이며 "2010년 공동주택 등 입주예정은 7,670호, 2011년에는 2,231호가 계획돼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12월 28일 기준 입주 현황은 2008년 12월 A3-1블록 369세대를 시작으로 2009년 총 13,600여세대가 입주했다.

A18-1블록 등에 3천여 세

대가 입주한 2009년 7월이 가장 많이 입주한 달이며 2009년 2월에 2천여세대가 입주했고 5월과 10월에도 1천6백여 세대가 입주했다. 2010년에는 7,670호, 2011년에는 2,231호가 입주할 예정이다.

2010년 판교신도시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A18-2, A24-1, A25-1블록에 순환재개발이주용으로 총 5천여 세대와 C1-1블록 등에 1천2백세대의 주상복합, B5-1블록 등에 300여세대 연립이 예정돼 있다.

판교신도시 생활편익시설 입점 현황을 보면 중심상업용지 1개소는 201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근린상업용지 15개소는 2010년 1분기 6개소, 2분기 6개소, 3분기 2개소, 4분기 1개소가 준공예정이다.

또 근린생활용지는 작년 9월 2개소, 11월 1개소가 완료됐고 나머지 2개소는 공사 중이다.

개발계획명면(변경)도



현재 단지내 상가는 총 238개소가 있고 그 중 부동산이 148개소로 가장 많고 슈퍼, 편의점, 할인마트 등이 21개소, 세탁소 11개소, 음식점 12개소, 학원 11개소, 은행 6개소 그리고 미용실, 어린이집, 기타 소매점이 29곳이다.

또한 공공업무시설에 은행 4곳과 치과병원 1개, 학원 4

개소가 입점해 있다. 한편, 판교는 우수한 입지조건과 1기 신도시 개발의 노하우를 살려 친환경, 자족도시로 계획됐으며 분당구 녹지를 27%보다 많은 37%로 녹지로 충분히 확보하고 바닷길, 자연형 하천 조성 등 친환경 설계요소를 도입했다.

또한 집단 에너지 시설, 소각장, 하수 처리장을 집단

으로 배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녹색기술도 적극 활용했다.

특히,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66만 1천㎡를 R&D특화지구인 판교테크노밸리로 지정·개발해 안철수 연구소 등 국·내외 첨단산업의 선두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가로는 가로변에 상가와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생활가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국지도 57호선 확장 공사는 2010년 8월까지, 신분당선은 2011년 12월까지(2011. 9월 개통) 완료할 계획이며 중심상업지역의 PF사업은 사업시행지와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 척추디스크전문 '분당척병원' 11일 개원

## 최고의 척추전문병원 지향... 80병상 규모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인 분당척병원이 오는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담동에 문을 연다.

분당척병원은 서울척병원에 이어 척병원이 만든 두번째 병원이며, 2천여평의 큰 규모의 80병상 규모로 세계적 수준의 진단 및 치료, 수술 장비와 전자의무 기록 등의 100%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분당척병원은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최고의 척추전문병원을 지향하고 있다.

의료진으로 있는 정상기 대표원장(전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척추신경외과)와 김동운 대표원장(척병원 대표원장, 척추신경외과) 모두 척추 분야 최고 수준의 의사로 평가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백경일 원장(서울척병원 신경외과 원장, 척추신경외과), 김주현 원장(서울척병원 정형외과 원장, 척추정형외과), 황승원 원장(척추



담우리들병원, 척추신경외과) 등 수준 높은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분당척병원은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레이저 디스크 수술에서부터 척추 고정술 까지 전 분야의 척추 수술이 가능하다. 특히 척추 유합을 하지 않는 척추고정술(연성고정술)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분당척병원은 세계적 수준

의 척추 수술 역량과 장비를 갖춘 전문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수술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특히 이 병원의 '직장인 척추치료 클리닉'은 바쁘고 시간 없는 직장인을 위해 퇴근 후 빠르게 간편하게 비수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분당척병원의 대표원장인 정상기 원장과 김동운 원장은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척추전문 의과사이이다.

정상기 원장은 우리들병원을 거쳐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역임했다. 김동운 원장은 우리들병원을 거쳐 서울척병원을 설립한 척병원 대표원장이다. 두 원장은 모두 5천 사례 이상의 수술과 3만여 환자에 대한 진료 경험을 갖고 있으며, 국제 1급 학술지에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 설립자인 김동운 대표원장은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을 통해 경기도 남부 지역과 먼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분당지역을 택했다"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또한 "비수술치료와 수술치료에서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분당척병원의 강점"이라고 하면서, "비수술치료를 우선으로 하되,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윈스톱 시스템의 편리함이 있는 병원"이라고 그 우수성을 강조했다.

정원수 기자

앞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서울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경기도민들의 주택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서울 시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개선 내용이 담긴

**지역우선공급제 개정 '꿈'**  
**경기도민 청약 기회 확대**  
**서울지역 청약도 가능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시민에게만 분양하던 기존안이 폐지되는 대신 서울시민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청약자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청약번호를 개방했다.

#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제한 완화 될 듯 6·2 지방선거 후보자... 표심 잡기 '시동'

## 예비후보자 2월 19일 등록... 기호 정당에서 순위 결정

오는 6월 2일 실시될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남중원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개정법이 공포 전에 있으나 지난해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월 중 공포돼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정치 신인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 주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선거구제로 인한 기초의원 복수공천의 경우 기존에 성씨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던 것을 정당에서 순위를 정하도록 했으며 정당에서 정하지 않거나 무소속일 경우 추첨 방식으로 기호를 부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에 의하면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의 장선거는 기존 선거 개시일 60일 전에서 90일로 확대돼 오는 6.2 지방선거의 경우 2월 19일 등록 가능하다. 단 군수와 군의원은 기존대로 60일 전에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었으나 숫자 제한이 없어졌으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었던 것을 예비후보자도 어깨띠 등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허용했다.

특히, 예비후보라도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그동안 금지돼 온 문자메시지 대량전송도 5회까지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자메시지 전송은 본 선거를 포함해 모두 5회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예비후보 기간에 모두 사용하면 본 선거에서 사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것들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위해 규칙 제정이 필요하고 규칙이 제정되면 적정수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공무원 등의 입후보' 사퇴시한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강화됐다.

이밖에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의 후보자까지 가능했던 후원회 모금이

6.2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시의원 또는 도의원 중 한명은 반드시 여성후보를 추천해야 하고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 선거보조원 1명에게 경비가 지급된다.

정관수 기자



## 성남지역 언론사 대표자협의회,신년회

### 김대진 성남시의회 의장 초청, 지역언론 발전 방향 모색

성남지역 언론사 대표자협의회(회장 정용석, 이하 대표자 회의)에서는 2010년을 맞아 지난 6일 첫 신년모임을 갖고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졌다.

또 대표자 회의는 명사초청 정례 간담회 일환으로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을 초청, 시정 전반

에 걸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대표자 회의는 성남에 분사를 두고 있는 지역 언론사 발행 편집인들의 모임으로 상호 협력과 우호를 다지며 지역 사회 및 문화, 언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9일 태동했다.

▲ 성남시수정·중원·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http://www.nec.go.kr)

### 정치후원금!

바른 정치를 위한 깨끗한 후원금입니다

### 정치후원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 인터넷으로 쉽게: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http://www.give.go.kr))
- ☑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숫자 539 (5-2-539) + 통신3사 인터넷 접속키 (NIPIT SHOW → 030)
- ☑ 제휴카드로 편리하게: 신용카드 포인트기부 (대우·국민·신한·비씨·국민·외환 등 6회사 가용)
- ☑ 대한민국국회 의원광장: [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 에서 후원

### 정치후원금 후원시 <sup>최고</sup>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인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액선택  정치후원금  결제  결제 완료

정치자금기부센터 ([www.give.go.kr](http://www.give.go.kr))를 통해 후원금을 후원하시면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자금기부센터 홈페이지 참조)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건강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건강보험이 만들어갑니다.

2009년 12월 보장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암환자 본인부담 절반으로 대폭 인하**

현행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 경감

**■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6~14세 어린이 치아에 생긴 홈 메우기 보험 적용

**■ 한방 물리요법**

한방물리요법 중 온습포, 적외선 치료 등 보험 적용



# 국민참여당 성남지역위 '창당'

## 지역위원장 김시중 시의원 선임... 지방선거 체제 '가동'

국민참여당 성남지역위원회(위원장 김시중)가 9일 오후 4시 정자동 주택 전시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성남지역위원회장은 김시중 성남시 의원, 여성위원장은 박경희, 청년위원장은 여선용, 분당갑지구위원장은 윤상화, 분당을지구위원장은 이종용씨가 선임됐다.

김시중 성남지역위원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국민참여당을 만든 당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충실히 있다고 느끼는데 하나는 살기 좋은 세상,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울분과 한"이라며 "두 가지 충동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당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맡고 있는 소수의 우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는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정책 실현을 위해 장벽을 없애 줄 수 있는 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남에서 반드시 이러한 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시중 성남지역위원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야 하는데 꼭 우리당의 후보거나 혹은 끝까지 가서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는 후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회의적이다"라며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아무 힘없이 다른 당의 후보, 다른 후보를 지원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런 정당은 존재의 의미가 약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인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과는 격렬하게 투쟁하는 '원칙과 상'

식'을 상기시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치의 측면에서는 투쟁했으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토론과 협상과 타협을 했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고 만들 수 있는 정치와 정당을 추구했다"며 "국민참여당은 물론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신에 충실해 각 당의 지역과 정당 기준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지역사회에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격려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의 1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박한 역사적 인식에 동의할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다"며 "이 시대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진보적 가치가 주류가 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처장은 특히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은 이러한 새로운 진보적 가치 창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온갖 왜곡과 조작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방해와 차단하려 할 것이다"며 "이들의 왜곡과 조작으로부터 진보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소명이며 새로 만들어야 할 새로운 가치의 핵심인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 주어진 운명인 연대"라고 강조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지난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떠난 것을 마음깊이 새기고 결코 잊을 수가 없으며 이후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후퇴되고 있는 것을 매우 분노한다"며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두 분 대통령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또 "참여 정부가 끝나

고 보수언론의 공격으로 복직을 못하고 사실상 캐나다로 망명하고 이후 귀국 후 노무현 대통령이 반겨줘 '진보의 미래'를 집필 보좌했으나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며 중단됐고 대통령은 자신의 고통을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고 표현했었다"며 "결국 '진보의 미래'를 유교집을 집필했으나 진보의 미래 출간으로 대통령의 위업이 완수된 것은 아니며 사람 사는 세상이 완수됐다고 할 수 없다"고 회고했다.

이어 "사람 사는 세상은 한사람만이 잘 사는 세상이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아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평등하고 품격 있게 잘 살 수 있는 약한 사람도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세상"이라며 "특히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진정한 노무현이 말한 진보의 미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이해학 목사도 정치란 키 큰 나무를 작은 나무가 공존하는 것이 정치고 경우에 따라서 과도하게 자란 나무를 잘라 주는 것이 정치라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 말했다"고 밝히고 "다양성과 공존, 균형 발전과 담대한 연대라는 가치들이 진보의 중요한 가치로써 민간독재를 넘어 진보적 가치가 승리할 수 있을지가 우리시대의 절대적 요구이자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처장은 "승리한다는 것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며 단순히 복수를 넘어서 미래의 보편적 요구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물론이고 새로운 사회의 주류로 만들어 나가 새로운 대안적 정치와 질서를 보편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중 시의원

이재명 민주당 분당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민참여당 창당을 보며 민주당에 활동할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모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시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지방선거 나아가 총선, 대선 등 개혁 진보 진영이 약간의 목소리는 차이는 있을 지라도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같이 갈 것으로 믿고 앞으로 크게 잘될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식전행사로 유시민 전 국회의원의 강연 동영상 시청했고 발족식에 이어 이해학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개혁 세력이 어떻게 힘을 합쳐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비롯해 국민참여당 용인시지역위원장,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조직국장,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장 등이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권수 기자

#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지방선거 승리하겠다"

##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제 토론회'... 정세균 대표 등 참석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혜영 의원을 좌장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원기)가 마련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의 선거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민주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당이 시민사회와 선거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담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인 '공천권'을 시민사회에 준 것"이라면서 "과거 밀실공천과 동원경선 등의 폐해를 반성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서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 보장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혁신위를 대표해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명 위원(민주당 부대변인)은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시민배심원단 투표로 실질적인 공천이 이루어지는 국민참여경선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기록권 포

기와 신진정치세력의 성장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위원은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일정수로 압축한 전문배심원단 1062명을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현직배심원 100명과 전문배심원 100명을 선출하여 후보검증 토론회 후에 투표를 통해 후보선출을 한 다음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공천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원제도와 관련하여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진품 배심원제를 모방한 '작품 배심원제'라고 규정하며, 배심원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도 않으면서 공심위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 당대표가 추천하여 구성한 '거수기'로 전략 가능성이 있는 국민공천 배심원제, 권한 3무 공천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시민배심원제 적용지역과 배심원단 규모, 배심원단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은 대표는 "무경험 자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한 적용지역을 확대해 한다"면서 "특히 호남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은 반드시 배심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와 민주당인터넷으로 중계되어 많은 시민사회와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다.

장내하의 주간인물 리뷰 김대화 전국 재경고흥군향우회장

#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광주권 발전의 '출발점'

## “이제 지역볼모를 떠나 큰 정치를 해야 할 때”



너른골에 봉사하는 호남 맹주 김대화 회장을 찾았다. 세속적인 욕심( 정치야심)에 초연한 그는 오늘도 광주지역과 향우들에 대한 봉사로 분주하다. 활동적인 웃차림에 백호관상인 얼굴로 필자를 맞는다. 광주 지역에만 호남 인구가 약 9만명이 넘고 인구비를 중 가장 높다. 또한 각 도 향우회에서도 가장 활발한 호남향우회가 광주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고, 호남인 중 여러 사람의 추천으로 김대화 회장과 신년 인터뷰를 갖게 되었다.

Q. 100년만의 큰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타향사람들은 고향생각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고향에도 겨울에 눈이 자주 내릴까요?

A. 옛날에는 고향인 전남 고흥에도 눈이 자주 내렸지만 요즘은 뜸하다고 합니다. 고흥은 따뜻한 남쪽 지방이며 16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섬과 그야말로 천혜의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의 해산물뿐만 아니라 육지와 섬에는 유자가 생장되어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등에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실한 정치인인 송영길 의원 박상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날씨 이야기를 덕담상이 던졌지만 그는 고향 날씨로부터 고향의 자람으로 얼굴이 밝아진다. 그의 고향 사람이 질게 배어있는 답변이다.)

Q. 한국의 3대 불가사의 단체의 하나인 호남향우회 중에서도 고흥향우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고흥향우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A. 한국의 4대 불가사의 단체라는 호남향우회, 해병전우회, 고대 교우회, 그리고 고흥 향우회가 있다고 합니다.(웃음) 전국에 22개 지회에 약 70만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수산물 판매대회에서도 1등을 차지했는데 전국 각 향우들이 고향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 판매도 하고 사용한 덕분입니다. 16개 읍면 조합장들이 뽕뽕 뽕뽕 유자상품 수출에 협력하여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흥 풍향면 회장의 임기를 2년 마치고 2007년 전국 고흥향우회 26대 취임하여 임기를 마치자 회원들의 유임요청에 따라 27대 회장으로 다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전주 등 전국행사에 참여하여 격려와 화합과 단결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Q. 호남 향우회가 각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와 갈등이나 마

찰은 없습니까? 아니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A. 어느 단체나 사람 사는 사회에서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남 향우회가 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다보니 가끔 지역사회와 불협화음이 나기도 하지만 순수한 봉사 활동을 통해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니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호남인이라는 부정적인 차별과 서러움, 배고픔은 이미 우리 호남인들이 극복하고 이미 지역 사회의 발전과 경제산업발전에 공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320만 경기도에 350만 인천에 55만명 등 수도권에만 약 75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발전의 한 축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Q. 호남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기층 민중의 의식을 성숙시켜 오고 통일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보세력과 민주당의 기반과 원군을 구성하면서 정치적으로

로도 절대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향우회와 정치권의 역할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이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여야에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온 마음과 몸을 바쳐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 통일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떠나 지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젊은 층들의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지금은 호남이나 영남, 충청의 지역볼모를 떠나 큰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는 자주 연설과 대화의 기회를 가져서인지, 중진급 정치인 같은 큰 답변을 던진다.)

Q. 현재 광주 성남 하남의 대통합이 무리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대통합에 대한 소견이 있다면.

A. 대통합을 환영 합니다. 과거 넓은 광주가 서울과 타지역으로 편입되어 광주가 소외된 도시가 되었는데 다시 통합이 된다면 광주는 물론 성남과 하남도 시너지 효과로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저는 지역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제에 호남향우회의 봉사와 헌신이 필요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성남시에서 호남향우회 수석부회장, 광주시에서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신 경력으로 볼 때 호남인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2010년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후보지지 등 선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A. 저는 단 한번도 향우회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장을 수행했다고 현실정치에 참여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광주 지역을 발전시키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진정으로 광주 시민을 위하는 훌륭한 열린 마음의 정치인이 있다면 적극 지지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모든 광주시민들이 복을 받고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김대화 회장의 말처럼 올해는 광주에서 태어난 “광주인들”과 “타향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의 발판을 두고 공동의 협력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필자에게도 든다. 대통합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려 오고 있으므로... 주저할 시간이 없으므로...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 수중발레의 눈으로 본 북한 체육의 현주소

2007년 싱크로나이즈드 스 위밍 아시아 에이지 그룹대회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나라는 선수층이 얇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선수를 다 모아서 겨우 한 팀을 만들어 자카르타 국제 수영장에 도착했다. 현대, 놀랍게도 늘 돈이 없어 국제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북한 팀이 보였다. 어쩔 일인가 싶어 연습하는 것을 보니 아 니나 다를까..... 단연 우승 후보감인 선수들만 데리고 출전한 것이다. 12세 이하와 13-15세 그룹의 솔로, 듀엣 2팀만 출전했지만 경기장에서 단연 화제의 대상이 되었다. 싱크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국제대회에 다니며 자신을 알리고 커가면서 점수 대를 올리게 되는 것이 상례인데, 북한은 나라가 가난하다보니 어쩌다 참가해 깜짝 쇼를 벌이기 일쑤이다. 게다가 심판도 대동하지 못하고 코치들 두명만 달랑 참석하

### 정영화 /싱크로상비군 감독

곤 한다. 2-3 명씩 심판을 데리고 온 나라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만 북한 코치와 선수들은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았다. 첫날 매니저 미팅과 심판 회의에 들어온 북한은 전혀 영어를 몰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짧은 영어 실력으로 가까스로 듣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연신 뭐라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저 같은 민족이라는 것과 안쓰러운 마음에, 남북이라는 경쟁 상대인 불행한 현실을 잊고 어미새가 모이를 물어다 주듯이 북한 코치들에게 경기 내내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교해도 견줄 만한 실력과 몸매를 갖고 있는 북한 선수들이 아까워서, 볼 때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말이다. 또, 비록 북한선수단이 준비한 음악의

촌스러움과 조잡한 작품성이 국제심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힘든 운동은 피하고 공부나 정부인양 매달리느라 진이 빠진 아이들을 코치들이 달래고 일레며 운동하는 반면에, 북한은 수문이 25.6도에도 군말 없이 서너 시간 이상을 운동한다니 경기력 차이가 날 수밖에..... 게다가 나중에 북한 코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싱크로 선수들은 부모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다니!

북한의 한 코치와 통 설명을 하고보니 서로 같은 나이라고 생일 맞춰보고 언니 동생하며 웃고 떠드니 한 핏줄이라는 민족에까지 드는데 그 코치가 가방에서 뭉가를 꺼내 보여 주었다. 아리랑 공연 선전물! 보러 오란다.



“어떻게 갈 수 있나?” 하니 “외국 사람들은 다 오는데 왜 못 오냐고.....” 물라서 그런 것이겠지만 잠시 머리가 멍해왔다. 예상대로 북한은 금메달을 쓸어갔다. 막강한 일본, 중국을 제치고! 거기엔 국제심판인 나도 한 몫을 했지만 정말 탐나는 선수들이었다. 대회가 끝나고 북한 코치들이 찾아와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나. 뒷맛이 씁쓸한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 한 민족끼리 모여 싱크로를 한다면 세계를

제패하고도 남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우리의 뛰어난 코칭 방법과 북한의 선수들이 만나면 가능할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우리 임원 단들과 무질없는 한숨을 시림이 끝나는 날까지 내내 교환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남북 선수단이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약속을 했지만 그 후 아직까지 국제대회에서 그 코치와 선수들을 볼 수 없었다.



## 생활속의 불교 실천도량 ‘법관사’

### ‘처염상정(處染常淨)’의 의미 새겨야 할 때

청안스님은 1년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택가에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편하게 기도정진 할 수 있도록 지상 3층 지하 1층의 생활속의 불교 실천도량인 법관사를 개원하였다. 합천 해인사가 본사인 청안스님은 78년 불문에 입문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관심을 끈임없이 가지며 포교에 힘써왔으나 현실 속에서 젊은 층의 저변확대에 어려움이 있음을 느끼고, 보다 넓은 곳에서 직접적인 포교를 위하여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군에 군승장교로 임

관하여 장병들과 함께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며 동고동락하면서 17년동안 불교 알리기에 힘써왔고, 전역과 동시에 대중속의 포교를 위하여 법관사라는 도량을 개원하였다. 법관사는 대웅전과 강의실 및 다실을 갖추고 있으며 조석예불과 사시불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 불자들이 언제든지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동참하여 정진할 수 있다. 또한 재일기도, 목요 정기법회, 불교대학, 문화강좌(사군자 등)등 현대인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가지고 불자들에게 다가가는 포교활동으로 정진하고 있다. 현재 법관사와 인연있는 불자는 400여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에 여념이 없으며, 앞으로도 법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써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부처님의 명훈가피가 흥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도량으로 나갈 것이다. 문의 : (031)798-8853

## “눈싸움이 눈(eye)을 위협한다”

### 눈물치에 눈 맞으면 위험... 안건교육 필요

학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눈싸움을 한 규태(10세·남). 한참을 즐겁게 놀던 중 친구가 던진 눈물치에 눈(eye)을 정통으로 맞았다. 처음엔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통증이 왔고 1시간이 지나도록 시야가 뿌옇고 눈물이 멈추지 않아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병원에서는 눈덩이가 각막에 맞아 각막상피가 벗겨지고 눈 앞쪽에 출혈이 생겼으며, 출혈이 줄어든 후 망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에다 연이은 한파로 아직 거리에 녹지 않는 눈들이 많은데,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거리에 쌓인 눈으로 눈싸움을 하다 눈을 다쳐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눈싸움 중 눈(eye)을 다쳐 병원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각막 미란이다. 각막 미란은 각막의 상피가 벗겨지는 질환으로 시력장애와 통증을 유발하고 눈물이 날 수 있다. 눈덩이가 안구에 정통으로 맞을 경우에는 각막 뿐만 아니라 홍채 등 안구 내부 조직이 손상되고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주로 눈 앞쪽에 출혈(전방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충격이 강할 경우에는 눈 뒤쪽 출혈(유리체 출혈)이 일어나 시력장애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눈덩이에 의해 안구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눈덩이가 아주 단단하거나, 물과 같이 단단한 물체가 들어 있는 경우, 안경이 눈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눈(eye)에 들어간 경우, 기존 안구 질환 등으로 안구 조직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안구가 파열되어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눈덩이로 인해 각막에 손상을 입었을 때는 우선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 안약을 투약하고 상피가 치유될 때까지 관찰한다. 상피 손상이 광범위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는 압박 안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안구내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5일 이내에 재출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환자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철망 안대 등으로 눈 주위를 보호하면서 조절마비제, 스테로이드 안약 등으로 출혈이 흡수되도록 한 후 출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 임산부 5명중 1명 '유산' ... 대책 '절실'

## 강원 홍천 유산을 32.9% 최고... 출산을 하라 '악순환'

지난 2008년 임산부 5명 중 1명이 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성남 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연령 지역별 자연유산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자연유산율은 2006년 20.2%에서 2007년 19.6%로 다소 감소하다가 2008년에는 20.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자연유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40대 이상 임산부의 유산율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19세 이하 임산부 유산율이 40.5%였으며, 30대 19.1%, 20대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30대 임산부의 유산율이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연유산 경험이 후후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유산율 증가는 인구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합계출



신상진 의원

산율과 자연유산율을 비교하면,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2007년도에는 자연유산율이 0.6%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2008년도에는 자연유산율이 0.5%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임산부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지역별 유산율 순위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강원(23.5%), 2007년도에는 전남(23.0%), 2008년도에는 광주(22.9%)지역이 가장 높았다.

특히 강원, 광주, 전남, 대전이 3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유산율이 매년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반면, 울산지역의 경우 3년 연속 가장 낮은 유산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유산율이 높은 시·군·구 상위 30곳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전남 장흥(45%), 2007년도에는 대전 남구(30.1%), 2008년도에는 강원 홍천군(32.9%)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산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역 유산율 상위 30위 지역 중 가장 많은 시·군·구가 해당되는 지역은 전남과 강원으로 2006년에는 12개, 2007년에는 13개, 2008년에는 13개 지역으로 전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2006년도에는 전남 곡성(14.5%), 2007년도에는 울산 북구(14.5%), 2008년도에는 전북 무주군(13.7%)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8년 기준으로 유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강원 홍천)과 가장 낮은 지역(전북 무주)간의 차이는 무려 19.2%p였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임산부들의 자연유산율 증가는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자연유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변동폭이 큰 지역에 대해선 조속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온라인서비스 구멍 인터넷주소 관리 '시급'

### 5대 포털 중 2개 포털서 오류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 초래

성남시의회 인터넷 주소가 잘못 알려지며 일본어 사이트로 접속됨에 따라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인터넷 주소는 sncouncil.go.kr임에도 불구하고 sncouncil.com으로 등록된 경우가 '네이트(nate.com)' 외에도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네이트'는 14일 오후 급히 인터넷 주소를 sncouncil.go.kr으로 올바르게 수정했다.

그러나 빠른 검색과 쉬운 검색을 위해 브라우저 주소창에 한글단어와 같이 URL이 아닌 단어를 입력했을 때 제공되는 '주소창서비스'에서도 성남시의회 인터넷 주소는 잘못 설정돼 있다.

KT DNS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열린주소창서비스'를 통해 성남시의회를 검색하면 인터넷 주소가 sncouncil.com으로 돼 있고 당연히 일본어 사이트로 접속된다.

브라우저 주소창에 영어로 된 인터넷 주소가 아닌 한글로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를 입력해도 KT DNS를 사용하는 이용자나 QOOK 인터넷돌바 설치된 사용자는 열린주소창서비스가 검색을 해 성남시의회 인터넷 주소를 sncouncil.com로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KTH의 포털 사이트인 '파란'(paran.com)에서 검색

해도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sncouncil.com로 잘못 등록돼 있어 클릭하면 일본어 사이트로 접속된다.

14일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네이트에서 검색 시 주소가 잘못된 것에 대해 "성남시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네이트가 잘못된 것이며 네이트 검색 순위가 네이버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네이버, 야후, 다음, 네이트, 파란 5대 포털 중에 이미 2개에서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지 링크가 상당 기간 잘못돼 방치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성남시의회와 소통하는 인터넷 관련인 홈페이지 주소가 잘못 등록됨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야탑동 고 모씨(남, 38세)는 "성남시의회의 홈페이지는 성남시의회의 얼굴이고 도메인 주소는 사람으로 보면 이름인데 어찌 이렇게 대중 관리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인터넷을 뒤지는 세상인데, 현재 통합시와 관련 성남시의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등 이슈가 많아 한번 들어와 보려 했는데 일본어 사이트로 접속되고 있어 황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권수 기자

## 성남종합터미널, 지하보도 개통

### 야탑역과 지하 연결... 인근 상권 활성화 기여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종합터미널과 야탑역을 잇는 지하보도가 개통된다. 시는 오는 20일경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건물인 테마플러스 지하 2층과 야탑역 개찰구 앞을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170m, 약 3천548㎡ 규모의 지하보도를 개통해 이 지역 환승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터미널 구간을 이용하는 하루평균 1만5천~2천여명의 시민들의 보행거리가 짧아지고 주변의 버스와 택시 정류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야탑역 인근의 영화관, 대형할인마트, 가구매장, 소림시설 등의 시민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개통된 지하보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8-1,2번지 도로 지하에 지난 1999년 완공됐다.

지난 2004년 5월 모란역에 위치했던 버스터미널이 야

탑동 현 위치로 이전할 당시, 교통 번잡을 예방키 위해 지하도보를 개통할 계획했으나,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장기화 돼 개통이 미뤄지다 지하보도에 대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약 한 달간의 보수공사 끝에 이번에 개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경기도-KT&G 법적 소송 '돌입'

## 김문수 도지사, "담배소송, 승소 확신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담배 화재 소송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14일 담배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재정 분야의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로 (주)KT&G와의 법정 소송에 직접 출석, 1차변론한 뒤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15일 수원지방법원 311-1호 법정에서 열린 '담배 화재로 인한 경기도 재정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 필요성을 주장하고, (주)KT&G를 상대로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소방재정피해를 직접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측 주장이 공익상 합당하고 청구가 마땅히 승소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담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는

대전환기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안전담배 제조가 가능한지, 효력이 있는지, 법적 문제가 성립되는지 등에 오랜 시간을 숙고해 왔다"며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것이야말로 공약을 위해 국가적으로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세계 6대 담배회사가 제조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임에도 안 하는 것은 국민의 무관심 때문이 아닌가 한다"며 "보다 깊은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을 통해 화재안전담배가 있느냐, 화재안전담배가 만들 기술이 있느냐, 예방의 효과가 있느냐, 또 화재원인으로 담배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경기도에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원스톱 해결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문협업체와 협약식 체결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G-신제품개발센터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지난 8일 기존 디자인스튜디오와 RF측정실을 통합한 G-신제품개발센터를 오픈하고 권역별 전문협업체와의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품개발관련 전문업체 협업 ▲기타 제품개발, 측정·분석, 미디어 제작과 관련된 사항 등의 지원기능을 한다. 또한 중기센터는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CNC 장비나 후공정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업체를 협업 업체로 선정해서 상호 협업을 통해 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

G-신제품개발센터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시제품제작, 마케팅을 지원해오던 경기디자인스튜디오와 전자통신 분야의 계속 장비를 갖춘 RF 측정실이 통합되어 G-신제품개발센터로 새롭게 태어난 것. G-신제품개발센터는 기업체, 대학·연구기관, 예비창업자, 개인연구자, 기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시제품 또는 시제품 제작 ▲미디어 영상물 및 사진 촬영 ▲전자기기 등 측정·분석 ▲제품 엔지니어링 및 설계 ▲센터보유장비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임대

를 통해 그동안 전문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부분과 교통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좀 더 편리하면서 다양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 5개 권역의 13개 협업업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기센터를 통해 시제품을 제작할 경우 일일업체 대비 약 20%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

### 지역콘텐츠클러스터 집중... 7% 성장 목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산업을 위해 지역콘텐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0년 콘텐츠 산업 7% 성장을 목표로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전략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 유통 활성화, 현장중심 전문 인력 양성, 공연영상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도내 콘텐츠 산업을 위해 만화·애니메이션, 방송·영상, 게임 분야의 지역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조성중인 부천시에는 유럽의 메이저 기업과 협력해 도내 만화와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유럽만화시장 진출과 유럽 웹툰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방송영상 클러스터인 고양시는 컴퓨터 그래픽 산업 집중화를 위해 미국, 뉴질랜드와 협력하여 할리우드 CG 관련 기업과 명사 초청 컨퍼런

스 개최 및 국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경기도 콘텐츠 펀드를 활용한 CG와 포스트 프로덕션 국제공동 제작 활성화 지원에도 나서 영화·과물이나 <해운대>와 같은 CG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게임 클러스터인 성남시는 기능성게임의 메카 경기도 실현을 위해 '2010KSF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개최하고, 게임 산업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집중 지원에도 나서 지난해 성남으로 유치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와 게임상용화지원센터와도 연계하여 게임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복이 새로 친정 같이 편안하고 고향같이 포근하고 따뜻한 호박 넝쿨 온수매트**

고급스러움에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과 색상, 과학적인 설계로 가치를 더합니다.

거를 난방비 걱정 없이 추위 없이! 성실기업의 호박 넝쿨 온수매트만의 장점 BIG 5

- BIG 1 | 전자파와 기계 소음이 없음
- BIG 2 | 선택이 가능(내·외 모두 선택)
- BIG 3 | 친환경적이고 부드러운 면원단(내·외)사용
- BIG 4 | 안정성과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감
- BIG 5 | 국내 최초 헝칭 가공기술 내장

ISO 9001 INNOBIZ

더블·싱글 매트, 키보드 폼셋도 구매시 여자구두 증정 매트 구매 전 고객에게 일회용 마스크 10매 증정

● 최고급 명품제하 / 비타민 특별알인 판매

- ◆ Since 1995 유명제하 COM 전문
- 마린오르피 (Marin Orphi) / 미디어케어 (Media Care) 전 제품
- 홀메이지 VIP 번호(GACH799000)로 회원 가입시 30% 평생할인(혜택 부여)
- www.goodshoesmail.com 참조
- ◆ 비타민(비타민) V-Vitamin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표

평화교회 (담양읍서 이흥반) 성실기업

경기도 광주시 병령동 236-12 TEL. 031-761-3674  
주문전화 070-8256-7060  
대표 임대현 장로

신원동 110-283-287024  
기업은행 242-050301-02-018  
국민은행 613802-01-08658  
농협 211011-52-106435

매곡주 정선영  
매곡주 정선영  
매곡주 정선영  
매곡주 정선영

간강칼럼

신은화/광주 조은 가정의학 의료원 원장

# 역류성 인후두염이란 무엇인가?

역류성 인후두염이란 위의 내용물(주로, 위산)이 거꾸로 다시 올라와 후두나 인두(목구멍속)를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킴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인후두 역류는 밤낮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질환은 성인에 발생하는 비갑염성 인후두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후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50%가 역류성 인후두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대 육아종, 후두암, 후두협착, 재발성 후두경련, 후두연화증 그리고 만성기침이나 천식, 기관지 확장증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 원인으로는 역류를 촉진하는 음식물, 생활습관, 스트레스, 약물, 위식도괄약근의 기능저하, 임신

등을 들 수 있다.

기전을 살펴보면 위액에 포함된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후두나 인두를 손상시켜서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식도 역류증 경우는 위산에 의하여 타는 듯한 흉통, 음식물의 게워냄 및 식도염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에, 역류성 인후두염은 거의 흉통을 동반하지 않는 쉼 목소리, 기침, 만성적으로 느끼는 목의 이물감 그리고 가래를 뱉고 싶지만 기침을 해도 나오는 것이 별로 없는 헛기침으로 목소리가 쉽게 변하는 인후두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타는 느낌과 입 냄새가 심하고 특히 아침에 음성변화가 심하다.

진단은 이비인후과적인 내시경이

나 후두경검사로 식도와 접해있는 후두 후반부위의 부종이나 발적과 같은 특징적인 후두양상을 관찰함으로써 진단한다. 확진검사는 식도운동검사와 식도의 산도를 측정하는 24시간 산도측정검사가 있다. 이런 방법은 다소 번거로우나 가장 확실한 진단검사이기도하다. 치료는 식이습관 과 생활습관의 개선이다. 다음은 개선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유의점을 열거하였다.

- 1) 흡연자는 금연하여야 한다. 담배는 역류를 조장시키는 원인이다.
- 2) 너무 꽉 끼인 옷을 입지 말며, 특히 허리부분이 조이는 옷을 피한다.
- 3) 식사는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하며 식사 중간에 간식을 먹지 않는다.
- 4)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다. 잠자기 3시간 이전에는 음식을 먹

지 않는 것이 좋다.

5) 잠잘 때는 상체와 머리를 약 15cm 이상 올린다. 머리만 높은 베개를 베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6) 지방질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7) 버터, 튀긴 음식, 치즈나 계란, 토마토, 양파 등을 삼간다.

8) 카페인이 있는 음식물 즉, 커피, 홍차, 녹차 등을 삼가며 청량음료 특히 콜라나 사이다 등을 마시지 말고 바하 류를 피한다.

9) 저녁엔 술을 삼간다.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식도와 위의 운동을 촉진하고 또한 식도괄약근의 기능을 향진시켜 속의 음식물 배출을 촉진시키는 약제,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제 및 위산으로부터 점막을 보호하기 위한 약제 등의 약물치료가 우선이고 일부의 경우 역류를 방지하기위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 광주시, 읍면동 애로사항 '청취'

### 조억동 시장, 읍면동 연두방문 실시

조억동 광주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읍면동 연두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두방문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읍면동별 지역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며,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조 시장은 18일 오후, 광남동, 보

건소, 송정동,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간부공직자들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받았으며, 시의원,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통리반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19일에는 초월읍, 실촌읍, 중부면,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을 방문하며, 또한 21일에는 퇴촌면, 남중면, 경안동, 도척면을 방문할 계획이다.

## 디자인세상 인터플러스

###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싼 가격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저가형 제작물을 만든 후 후회하신 적이 없었는지요?

인터플러스에서 저렴한면서도 퀄리티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 유지보수  
기본형 100만원(일반홍보), 일반형, 맞춤형까지

카드록 / 팸플릿  
기본형 150만원(칼라 8페이지, SW200g, 1,000부 기준) ~ 맞춤형까지

그래픽디자인  
CI / BI, 포스터, 3D 등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r-plus.c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Tel.070-7649-5136 HP.011-381-2136

# “이유있는 1등”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로!

고졸졸업년도와 상관없이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대구?



평생기술로 평생직업을 칠순까지 철밥통 기술을 안겨드립니다.

**전형별 모집인원**

학 과	소 계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특별전형
컴퓨터응용금형	33	12	12	9
컴퓨터응용기계	33	12	12	9
신소재응용	33	12	12	9
자동화시스템	33	12	12	9
전기계측제어	33	12	12	9
광 전 자	33	12	12	9
시스템제어정비	33	12	12	9
정보통신시스템	16	6	6	4

\* 상기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전형별 모집일정**

원 서 접 수	인터넷	2009.12.21(월) ~ 2010.1.14(목)	유웨이, 진학사
	방 문	2010.1.12(화) ~ 2010.1.14(목)	
면 접		2010.1.20(수)	
합격자발표		2010.1.27(수)	
등 록 기 간		2010.1.27(수) ~ 2010.1.29(금)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로!**

**높은취업률**

- 4년연속 취업률 90% 이상
- 현장중심의 기술교육
- 대졸자도 다시 입학하여 취업하는 대학

**국책특수대학**

- 국가가 설립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2년제 전문대학
- 저렴한 학비(타 전문대학의 1/2)
- 최신 시설 기숙사 원비
- 신기술교육장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 중

**해외연수**

- 재학생 대상 학생 해외연수비 대학 전액 지원
- 해외연수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한국폴리텍 I 대학 성남캠퍼스의 특별한 입시 Tip!  
고졸졸업년도와 상관없이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대구?

- 타대학 합격자도 지원가능
- 면접 30% 반영
- 수능과 내신 중 골라서 내 맘대로
- 가산점 적용
- 다른 대학을 졸업하셨나요?

**입학문의**  
TEL. 031-739-4010~14  
FAX. 031-749-3375



수정·중원 재개발 현장을 가다 ① 신중선 수정구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관계자 회의 직무모습.



# “고도제한 완화 없는 재개발 반대한다”

## 신흥2,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 제5구역 지정 고도제한 피해 주민의견 수렴 권고, 교육·주거환경 최적... ‘성남의 비전 꿈꿔’



성남시 수정, 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단계인 단대구역과 중1구역이 지난해 6월 착공한데 이어 2단계 신흥2, 중1, 금광1구역도 12월 4일자로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됨에 따라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성남시와 시행사인 토지구택공사는 신흥2구역 이주단지가 관교에 마련돼 계획대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주민들은 고도제한 해결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과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신흥2구역 주민들은 지난 3월 고도제한 철폐를 위한 범시민대회에 동참하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고도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12월 3일 성남발전연합이 주관하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 결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와 국방부에 고도제 해결을 촉구하며 희망의 풍선을 띄워 보내기도 했다.

- 신흥2구역 추진현황  
성남시 재개발 2단계(신흥2, 수정2,

중1, 금광1구역)인 ‘신흥2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 26일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고 27일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택공사로 지정돼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 12월 14일 고분단과 추진위원 71명이 참석한 추진위원회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공영방식을 채택, 주민대표회의로의 전환을 결의했다.

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최단기간으로 징구하여 올 5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을 통보받고 9월 30일 주민대표회의를 열고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과 사업시행약정서를 인준했다.

이날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은 1,257명 투표에 1,147명(91%)이 찬성, 사업시행약정서는 1,136명(90%)이 찬성했다.

이에 10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12월 4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승인받았다. 현재는 지장물 검사 및 감정평가가 당면해 있고 감정평가업체는 이미 선정돼 계약단계에 있다.

- 신흥2구역은 어떤 곳인가?  
신흥2구역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성남도립도서관, 희망대초등학교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고 지하철 산성역과 신흥역이 앞뒤로 있어 최적의 교통을 자랑한다. 그러나 중1구역과 금광1구역은 25층, 20층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신흥2동은 15층으로 됐다.

신흥2구역에게 고도제한 완화가 가장 기대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고도제한이 완화돼 최소한 25층 이상은 돼야 주민들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구택공사 관계자도 “신흥2구역은 고도제한 완화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올 12월 말, 내년 1월 초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데 그 이후로 시공사 선정을 했으면 한다.

- 성남시에 요구사항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출했다. 주민 재산과 직결되는 용적률이 지난 2006년 11월 30일 시에서 발표한 기본계획 250%에 훨씬 못 미치는 223.8%로 공람됐다. 신흥2구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분리돼 있어 법정 용적률 265%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성남시가 시민을 위한 재개발을 한다면 고도제한 완화와 아울러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 가옥주 부담을 줄이고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

또 2008년 11월 26일 정비구역지정 고시 때보다 용적률상정 연면적이 4천 평 이상 감소했다. 토지소유자 2100명을 기준으로 3천여만원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사업시행인가 공람 고시(안)를 보면 세대수도 38세대가 준 3,299세대이다.

시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읍촌로 문제이다. 읍촌로 30m 확장에 포함된 신흥2구역의 도로면 상가에 대해 희망로 확장공사와 대등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 이주단지 공급은?

이미 관교 이주 단지가 아마 준공이 났을 것이다. 2단계에서 들어가야 하



신흥2구역 조감도.



신흥2구역 배치도.

는데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니 토지구택공사와 시에서는 고민하고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한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등과 함께 가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와 토지구택공사와 의견조율을 통해 추진하는 게 좋다.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후, 고도제한 완화 시에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하시고 싶은 말씀은?

신흥2구역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 피해가 많다.

주민들도 고도제한이 완화돼야 사업성과 재정착률이 높아진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재개발의 모든 일은 고도제한이 관건이다.

논설주간 정내하



# 자연 재앙, 그리고 인간의 대응

1991년 6월 14일, 한 대의 짐차가 필리핀 마닐라 북쪽 방향에 있는 미군 클라크 공군기지를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10여km 만 더 가서 다리를 하나 건너면 클라크 공군기지로 들어서게 된다. 잔뜩 흐린 오후로 기억된다. 갑자기 먼 곳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고 먹구름의 하늘에서 싸리 눈이 떨어졌다. “야 형주야! 이거 우박이나 싸리눈이냐?” 짐차 뒤에 타고 있던 내 친구에게 물었다. “아니 열대지방에 웬 우박이야? 말도 안돼.... 그런데 밖에 내리고 있는 것이 뭐지?” 친구 형주도 놀라며 의아해하였다.

필리핀 운전사 미스터 네스토도 영문을 모를 채 운전을 계속 하였다. 그 때 밖이 칠 흉같이 어두워지더니 매콤하면서 유황 같은 냄새가 퍼져 나왔다. 웨~앵하는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다. 점점 내리는 우박들이 커지더니 얼지 손뼉만한 크기로 떨어졌다.

갓길에 차를 잠시 정차하고 밖에 나가 하늘의 낙진들을 만져 보았다. 놀랍게도 작고 가벼운 돌덩어리이다. 그 때 운전사 네스토도가 영어로 “Pinatubo Volcano eruption!!(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외쳤다. 2-3일 전부터 피나투보 화산에서는 작은 폭발이 있었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6월 14일 방금 전 대폭발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나와 친구는 그렇게 피나투보의 대폭발을 만난 것이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클라크 공군 기지에 몇킬로 안 남았는데.... 차를 계속 전진하는 데 차의 윈도우 브러시가 고장이 나서 떨어지는 화산재 낙진을 쓸어 낼 수가 없었다. 오후 3시경이지만 너무 어둡고 처음 겪는 상황에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온다. 우리는 전진을 포기하고 유턴을 하여 마닐라로 돌아섰다. 돌아오는 도중에 나는 수건으로 화산재가 쌓이는 앞 창문을 계속 닦아야 했다.

저녁 즈음 마닐라 호텔로 돌아오니, 피나투보 화산에서 40여km 떨어진 마닐라 시내도 화산재가 눈처럼 날리고 있었다. 아니 하늘 석회석 공장에서 시멘트 가루를 뿌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밤에 MBC에 제보를 했더니, 다음날 아침뉴스를 통해 피나투보 화산폭발은 내 목소리를 실은 전파를 통해 대한민국에 생생히 알려졌다.

필리핀 아침 신문에는 대폭발의 사진과 클라크 공군기지에 사담만한 암석들이 날아와 활주로를 폭격하고 입구의 다리도 붕괴됐다는 기사들로 일면을 장식했다. 그 기사들을 읽고 한동안 머리가 멍해졌다. 다리만 건넌다면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 날 화산폭발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마닐라를 통과해 북쪽으로 향했다. 태풍의 속성상 오른쪽으로 바람을 감으면서 진행한다. 태풍이 피나투보산 상공을

공황 로비에는 마치 전쟁이 터진 나라처럼 탈출하려는 수많은 외국인들로 아수라장이다. 공황에 나갔던 우리는 탈출을 포기하고 호텔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나는 소중한 아들의 첫돌(2001년 6월 17일)을 화산 피난민이 되어 아나(아들, 한국에서도 유행한 곡)이라는 필리핀 노래를 들으며 눈물로 맞았다.

어느 책에 1976년에 발생한 중국의 당산 대지진(공식적으로 24만명이 사망)과 미국 한 도시의 24시간 정전 사고시 시민들의 대

혁명이 일어난 것이 인간의 역사이다. 소수의 인간을 위한, 소수 인간에 의한, 소수 인간의 세상에 언제나 백성의 준엄한 심판과 대응이 있었다.

1894년 동학혁명이후 120여 년간 한반도에는 이러한 민중과 백성들의 소수 지배층에 대한 분노와 대응은 때로는 조악하고 거칠었지만, 수많은 시련과 실패의 계단을 오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깃발을 대한민국 중심에 심었고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발전 되었다.

현 MB정부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경제는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개발독재 혹은 탈레반적 신 시장주의로, 정치는 관치적 민주주의로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100여년 지나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 되듯이, 동학혁명 이후의 민주와 평등을 향한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도 거꾸로 돌릴 수도 없음을 위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단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단기간의 사회운동이 아니라, 동학혁명 때부터 시작한 20여년의 장구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1월초부터 100년만의 대폭발과 한파로 얼어붙은 자연재해에도 시민들은 당당히 이겨내고 있다. 요즈음 도로나 곳곳에서 긴 겨울 겨울잠을 자고 있을 불도저나 포크 레인, 트럭이 눈을 실어 나르며 성숙한 시민들은 자기 집 앞이나 아파트의 눈을 치우고, 광주시에는 모 부대 장병들이 나와 삽과 빗을 들고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다.

2010년 정초부터 이러한 대설 폭격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에는, 광주에는 희망이 있다!

성숙한 시민의 삽질과 포크 레인과 트럭 기사의 능숙한 솜씨 그리고 군인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있으므로...

## 자연재해, 천재지변 일면 인간 재앙도 뒤따라 민란과 혁명 다반사 소수 인간에겐 준엄한 심판 100년만의 대폭설 후 모두 나와 집 마당 쓸기 시민들 성숙한 '삽질' 속에 민주주의 희망엿보여

통과하면서 온갖 화산재를 갈아남쪽 마닐라시 까지 뿌렸다. 마닐라 시는 화산재(시멘트가루)로 온통 뒤집어 써 2010년 1월초 눈 폭격을 맞은 한국처럼 보였다. 이틀 후 아수라장이 된 시내에서 필리핀 사업 파트너인 울로란 사장과 2층 식당에서 밥을 먹는 데 갑자기 건물에 흔들림이 오더니 식탁의 잔이 쓰러지고 스푼과 나이프가 진동에 미끄러진다. 미스터 울로란이 포크의 고기를 먹으면서 영어로 한마디 가볍게 소리친다. “Earthquake! Mr. Jung” 이 소리에 혼비백산이 된 나와 친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자 필리핀 파트너는 “That's OK” 하면서 식사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식당 종업원들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써빙을 계속했다.

화산 폭발, 태풍과 지진을 다루는 방송국의 침착한 보도도 길거리의 미국 갑승에 파묻혀 버린다. 시민들도 큰 통요 없이 삼재일체의 우려적인 자연재앙에 능숙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공황은 10여 일간 폐쇄되었다. 활주로를 시멘트가루처럼 화산재가 두껍게 깔려있어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했고 비행기 엔진에 유황기의 화산재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응과 혼란을 비교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수십만 명이 죽는 대참사에도 중국인민들은 도둑과 강탈 없이 성숙하게 대응한 반면, 미국의 정전된 도시에서는 온갖 도둑질, 상점 강탈, 방화 등 아수라장이 된 것을 비교한 내용이 내 기억 창고에 아스라이 남아 있다. 2008년 쓰촨 성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중국인민들은 “중국은 하나다!” “중국 힘내라!” 하면서 한국 돈으로 약 3조원을 모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선봉사를 하는 것이 보도되었다. 인간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시에는 분노나 증오대신 서로 협력하여 재앙을 이겨내는 반면, 인간의 수탈이나 나라가 척어 관리들이 백성을 가렴주구하는 인간재앙에는 민란과

## 뉴스데이

newsday.or.kr

발행·편집인: 김광란	발행처: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편집장: 모동희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17 명성빌딩5층
등록일: 2005년 9월 30일	구독·광고 문의: 031-721-9922
등록번호: 경기 다00907	팩스: 031-721-992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 뉴스데이

newsday.or.kr

디자인세상  
인터플러스

홈페이지 구축 유지보수  
/3D/CI/BI  
카다록/팜플렛/기타 홍보물

제44호 | 발행일 : 2010. 1. 25. |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 교육 · 주거환경 최적... “성남의 비전을 꿈꾼다”

신중선 수정구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직무대행)

### INDEX

- 0 하광상공회의소 '2010년 신년인사회' 개최 2면
- 0 성남 · 광주 · 하남 통합시, 급류 타나? 3면
- 0 판교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 '준공' 4면
- 0 6·2 지방선거 후보자... 표심 잡기 '시동' 5면
- 0 이제 지역볼모를 떠나 큰 정치를 해야 할 때 8면
- 0 임산부 5명중 1명 '유산'... 대책 마련 '절실' 10면
- 0 경기도 - KT&G 법적 소송 '돌입' 11면
- 0 "고도제한 완화 없는 재개발 반대한다" 14면



우리의 대표브랜드 - 삼성

플래시토포피아의 시대,  
SSD의 질주에 주목하라!



상상해봐! 모바일 컴퓨팅의 새로운 패러다임, SSD.



삼성 플래시토포피아의 첫 작품, SSD(Solid State Disk),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신개념 저장장치인 SSD는 기계적인 HDD방식과 달리 읽기와 쓰기, 부팅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지고 외부 충격에 의한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또한 초경량, 초질량을 실현하여 모바일기기의 경박단소화를 구현합니다. 노트북에서 모바일 기기까지, 이제 선택은 SSD입니다.

1.8" 32GB SSD (Solid State Disk) • AL71 90MB/s, WL71 32MB/s • 용량: 8GB, 16GB, 32GB, 64GB, 128GB, 256GB, 512GB, 1TB • 동작 온도: -25°C ~ 85°C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SAMSUNG